

계단 탐방로 ~ 오름 정상

1960년대 삼나무가 식재되어 삼나무군락지가 형성되어 있고, 삼나무 아래 새덕이, 참식나무, 생달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새우난초 복원사업을 시행하여 새우난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천남성, 콩짜개덩굴, 나도히초미, 금새우난초, 두루미천남성, 빛나무, 비자나무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아리난초 국내 첫 발견지이기도 합니다.

삼나무숲길 ~ 자연숲길

인공림인 삼나무숲 아래에는 여러해살이 식물인 뱀틀, 백량금, 나도히초미 등이 자랍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자연림에는 서어나무, 단풍나무, 붉가시나무, 산병나무, 비목나무, 참식나무, 아왜나무, 때죽나무, 참꽃나무, 작살나무, 새비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오소리 굴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능선 탐방로 ~ 오름 정상

오름 정상은 서어나무, 참식나무, 새덕이, 산병나무, 곰의말채 등이 상층을 이루고 그 아래에 새우난초, 금새우난초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름정상(갈림길) ~ 습지

팔배나무, 서어나무, 참꽃나무, 참식나무, 사람주나무, 작살나무, 때죽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오름 정상에 분포하고 있으며, 습지는 서어나무, 팔배나무, 사람주나무 등이 자라고 제비꽃, 조릿대풀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소몰이길

비자나무숲이 조성되었고, 곰솔, 졸참나무 등이 숲을 이루며, 길의 양쪽에는 양지꽃, 띠, 구슬봉이 등 초본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과거 수망리 목장조합이 소를 방목하기 위해 소를 몰았던 길로 계절마다 다양한 야생화가 피어납니다.

목장오솔길 ~ 오솔길

편백, 비자나무, 때죽나무 등이 상층을 이루는 숲이 있으며 그 아래에 가는잎할미꽃, 졸참나무, 작살나무, 혼련호색, 새우난초, 설설고사리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탐방로 근처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굴)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 찾아오는 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88



물영아리오름 습지

🌿 해설 및 교육안내

물영아리오름 습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 습지 해설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 습지해설사 상시해설**
(현장신청가능), 남원읍 수망리 산182-5

운영기간 3월~11월

참가대상 물영아리탐방객

신청문의 람사르습지도시 서귀포 전문지원단체
Tel. 010-7611-4548

이 자료는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습지

물영아리 오름

물영아리오름 습지 탐방길



초지(소 방목지)

수망리 마을 목장조합이 소를 방목하는 곳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방목하고 있습니다. 소 방목은 멸종위기종인 애기불소똥구리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복수초 군락지

자연 소하천을 따라 낙엽활엽수 아래 세복수초 군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탐방로 입구 ~ 계단 탐방로 ~ 오름 정상

방목지 옆으로 형성된 소하천에 3월이 되면 세복수초, 으름덩굴, 별꽃, 큰개별꽃, 자주괴불주머니, 현호색 등 야생화가 꽃을 피우고 4월이면 상산에 새순이 나면서 독특한 향으로 가득하고, 5~6월에는 산수국 꽃이 피어납니다. 또한, 고사리삼, 족제비고사리, 홍지네고사리, 산꽃고사리삼, 천남성, 복분자나무, 으아리 등이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고, 비목나무, 먼나무 등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뱀이 탐방로 인근에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서귀포

물영아리오름



물영아리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88번지 일대입니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체로 오름의 높이는 해발 508m입니다. 제주도 대부분의 오름은 분석구로서 물스민성이 높아 물이 고이지 않지만, 물영아리오름을 비롯하여 물참오름, 물장오리오름 등은 정상에 화구호 습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영아리오름 화구호는 분화구의 화구벽에서 흘러 내려온 입자가 가는 흙과 식물의 사체 등 온갖 유기물이 흘러내려 두꺼운 유기물층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층이 물 빠짐을 차단하여 습지를 형성합니다.

물영아리오름은 정상에 화구호가 형성되어 있는 **지질학적 특이성과 생물종 다양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1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물영아리오름 습지 식생 분포



고마리



원꽃물고추나물



마름



바늘골



바보여귀



송이고랭이

습지 보호지역 내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돼요!

-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흙, 모래, 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습지보전법 제13조

물영아리오름에 서식하는 동식물

물영아리오름과 습지에 88과 215속 292종 10아종 35변종 3품종 총 331분류군의 관속 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죽도리, 참개별꽃, 새끼노루귀, 별개냉이, 좀절레꽃, 솔비나무, 제주조릿대, 좀비비추 등 8분류군은 우리나라 고유식물입니다. 좁은 면적에 이처럼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는 이유는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식물의 수직 분포상 낙엽활엽수림대와 상록활엽수림대의 전이대에 있으며, 오름 남사면 삼나무 조림지 등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영아리오름에는 여러가지 곤충과 양서류, 파충류 및 포유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생물1급	검독수리, 비바리뱀, 매
멸종위기생물2급	으름난초, 백운란, 맹꽁이, 물장군,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별소통구리, 발매, 독수리, 팔색조, 긴꼬리딱새
한국고유생물종	산바퀴, 제주풍뎅이
희귀종	영아리난초, 한라새우난초
그외	제주도롱뇽, 청개구리, 유혈목이, 쇠살모사, 도마뱀등(양서파충류) 오소리, 제주족제비, 노루 등(포유류) 종대백로, 황로, 흰뺨검둥오리, 작박구리 등(조류)

물영아리오름 습지 탐방 에티켓

- 외부 식물의 인위적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탐방로 입구에서 신발과 바지를 털고 가주세요.
- 5월에는 새들이 짹짹기를 하고 알을 낳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말아주세요.
- 오름에는 멸종위기 종과 희귀종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을 채취하지 말아주세요.
- 오름 탐방 중 음악감상은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용하게 즐겨주세요.
- 음식은 보호지역 밖에서 드셔야 해요. 쓰레기는 되가져가 주세요.
-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주세요.
-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 4월부터 8월까지 탐방로 부근에 쇠살모사가 종종 출현하니 주의바랍니다.

람사르습지 물영아리오름



람사르 협약이란?

국제사회는 **이동 철새**의 개체군과 그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면서 1971년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일명 란사르(Ramsar)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동·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약은 1975년 12월 21일 발효 되었는데, 습지의 기능 및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그 보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습지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명칭만을 보면 물새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습지를 생태계로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넓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식처(즉 습지)의 보호**에 중점이 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